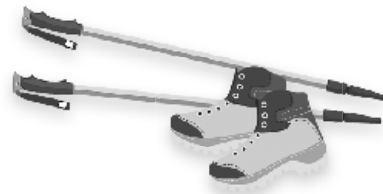


어쩌다 등산



지난 한 달간 매주 산에 올랐다. 이번 주는 심지어 세 번째 산행으로 어제는 내면산, 내일은 청계산에 오를 예정이다. 평생 산이라고는 관광지 구경 가듯 주차장에 주차하고 설렁설렁 걸어서 유명 사찰 앞에서 사진 찍는 정도가 다였던 나였다. 행여 계단이 많거나 비탈길이라도 나오면 구시렁구시렁 불평하는 것이 예사였다. 내게 등산이라 하면 대학 산악부 출신의 엄마가 평생 그리워하던 청춘의 한 장면처럼 아득하고 알록달록한 등산복에 시큼한 땀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뒤범벅된 시골벽적한 산악회처럼 눈살 찌푸려지는 것이었다.

다시 내려올 산을 고생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것도 별로고, 사방에서 날아드는 곤충도, 모르는 길을 찾아 헤매는 불안한 기분도 모조리 싫었다. 산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아름다운 뷰와 멋진 전경은 반드시 산꼭대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그랬다. 산을 모르던 그때는 말이다.

시작은 아주 평범하다 못해 뻔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어느 날 뜬금없이 친구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결국 계속 오르게 되었다는 흔한 이야기. 등산은 어릴 적 부모님 따라 가보고 처음이라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요즘 파워워킹도 만보씩 걷고 주 3회 러닝도 하고 있으니 해발 4~5백 되는 산쯤이야 올라갈 수 있겠지 알잡아 보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내가 이래 봐도 60대에도 미국의 온갖 산을 누비던 산악부 출신 엄마와 에베레스트도 다녀오신 아빠의 딸이다. 모르긴 몰라도 내 안 어딘가에 산악인의 피가 아주 조금은 흐르고 있지 않겠는가?

친구의 등산화를 빌려 신고 일단 올라갔다. 첫 산은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사패산으로 나 같은 등린이(등산+어린이 합성어)도 오르기 수월하다고 수많은 등산 블로거들과 친구 부부가 추천을 했다. 처음에는 꽤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시작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등산 십여분 만에 나는 비오듯이 땀을 흘리며 전력질주라도 한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사패산은 등산 입문자에게 적당하다고 추천한 블로거와 친구를 번갈아 원망하며 억지로 발을 움직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했지만 아무리 무거운 다리를 움직여도 정상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고 미친 듯이 차오르는 숨 때문에 당장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난 틀렸어. 나두고 다녀들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거의 다 왔다.” 며 어르고 달래는 친구를 생각하니 어떻게든 올라가야만 했다.

그리고 정말 잠시 후 나는 정상에 서 있었다. 내가 정상까지 올랐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특해서 그동안의 고생이 말끔히 사라지는 듯했다. 확 트인 전경은 산 위까지 오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선물과도 같았다. 아파트, 타워,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뷰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는데 설명하기 힘든 그 무엇이 있었다. 그리고 그늘에 앉아 챙겨온 소소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씹장이 없으면 먹지도 않던 오이마저도 꿀맛이었다. 고생 끝에 맛보는 낙이란 것이 이런 것이겠지 싶었다.

그러나 곧이어 다시 그 길을 내려오며 나는 생각했다. ‘아…… 이 산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산이로구나.’ 내려오는 것은 쉽다더니 그것도 사람 나

름이었나 보다. 나처럼 겁 많은 사람에게는 하산도 쉽지 않았다. 자칫 발을 헛디뎠다 넘어지더라도 할까 봐 어쩌나 주저하며 발을 내디뎠는지 올라갈 때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경직된 목과 어깨까지 아파왔다.

첫 등산 이후 종아리에 엄청난 근육통이 와서 삼일 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나를 데려가 준 친구 부부도 이대로 끝이구나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나는 그날로 바로 등산화와 등산 스틱을 주문해버리고 말았다. 첫 등산 이후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자연의 섭리와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일게 되었다…… 먼 줄이었지만 사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저 단순히 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주말마다 남편과 공유할 수 있는 취미가 생겨서 오랜만에 신이 났다. 함께 운동을 하는데 그 장소가 때면 바뀌는 것도 꽤 설레고 등산 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아직은 동네 주민들이 약속터 찾듯이 운동화 신고 날다람쥐처럼 뛰어올라가는 산도 씩씩거리며 겨우 올라가는 등린이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그 심오한 진리와 섭리에도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겠지.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어바인 2층집타운홈 985천

어바인 Great Park 방3 화3 2016년 1963 sqft



아직 마켓에 안나온 부에나팍 싱글홈 739천

방 4개 화 4개 1900 sqft 1966년 이층집 2 car garage



플러튼 단층집 97만

포텐셜 많은 지역, 엑스트라 인컴 ADU듀플렉스
방 5개 화 2개 2000sqft 대지 7400 sqft



싸이프레스 타운홈 699천

방 3개 화 3 1595 sqft 2005년
타운홈 아주 관리 잘되어 있는 무브인 컨디션



부에나팍 로스코요테 골프 코스 안 새집 분양

The Villas at Los coyotes Country club
방2 ~ 방4 1630 sqft ~ 3550 sqft 최고 위치/학군
*무조건 돈 버는 집 *분양 안내와 가격은 전화 주세요



라미라다 새집 분양 749천

방 3개 화 3개 1775 sqft 2021 타운홈
*분양 안내와 가격은 전화 주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